

글로벌 신산업 · K-문화관광도시로 도약



민선8기 시정이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이 하반기 시정 방향의 키워드로 '글로벌 신산업'과 'K-문화관광 거점도시'를 제시했다.

지난 8일 오전,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8기 2주년 언론브리핑을 갖고 2년간의 성과와 하반기 시정 방향 등을 설명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최우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또한 "민선 8기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군산시를 미래세대가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글로벌 신산업·K문화관광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잦바리 파행으로 인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다사다난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한중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고군산군도 K-관광섬 선정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다"며 감사사를 표했다.

▲민선8기 전반기 군산시정
전 국가적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군산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가 아니어도 아이 키우며 살만한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로 기반을 다져왔다.

임기 전반 2년 동안, 강임준 시장은 △인구위기 대응 '키움 으뜸 가족 행복도시' 선포 △이차전지 신산업 육성 △중소공공도매물류센터 등을 통한 골목상권 지원 △지역특화 콘텐츠 기반 문화관광 활성화 △이상기후 재난재해 사전 대응 △친환경 시민친화 도시숲 조성 △경쟁력 강한 농·수산 육성 등으로 시정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늘 시민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노력의 결과로 시민체감형 다양한 정책 추진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를 강조했다.

▲후반기 시정방향의 키워드는 '글로벌 신산업'과 'K-문화관광 거점도시'
앞으로 남은 2년에 대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키움 으뜸 가족 행복도시'를 기치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의 도약 △글로벌 신산업 및 로컬 경제 육성 △체류형 K문화관광 활성화 △친환경 생태·안전도시 조성 등 5대 전략을 통해 시민과 함께 포용하고 성장하는 '글로벌 신산업·K문화관광 거점 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키움 으뜸 가족 행복도시' 조성 위해 5대 전략, 17개 과제 수립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 · 재생에너지 사업 지속 추진 체류형 K문화관광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5대 전략 마련

아이와 청년을 키우고 가정과 지역의 성장을 돕고, 돌봄과 교육을 잘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5대 전략, 17개 과제의 총 92개 사업, 4,262억원을 투자하여 내실있는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설시장내 스마트도서관 조성, 거점 도서관 리모델링 등 △창의적 혁신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돌봄과 배움이 결합된 △군산만의 특색있는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발굴해 효능감 높은 교육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히고,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의 전면시행 등 교육분야에 전폭적 투자를 예고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강임준 시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추진 의지를 강력히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연간 약 35억원의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큰 자원이기에, 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과 탄소무역장벽 등 세계적 흐름은 육상태양광에 이어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이끌어냈으며, RE100산단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관련 기업의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 대내외 여건이 무르익어가는 만큼 '재생에너지 선도도시' 군산의 순항을 자부했다.

▲글로벌 신산업 및 로컬경제 육성
강임준 시장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로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신산업, 향산물류, 농수산, 민생경제 등 분야별로 꼼꼼히 챙겼다.

△미래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등 첨단산업 중심 재편을 준비하며,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등 속도감있는 이차전지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그치지 않고, △이차전지, 반도체와 융합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강화하여 군산시가 지속 성장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도시'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한중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과 △군산새만금신

항, 국제공항, 철도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조속한 완공으로 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 물류교통 허브도시'로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으로는 △농촌협약을 토대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전략작물 육성, △스마트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서해안권 대표 관광 수산시장으로 육성해 '경쟁력 있는 강한 농·수산'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하반기 2년, 온 힘을 쏟는 곳은 바로 민생경제라며 지역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산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안심물가제를 운영하고, △군산맛아이를 활용한 수제맥주 산업화 등 지역의 가치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체류형 K-문화관광 활성화
매년 5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명품관광도시인 군산은 앞으로 고군산군도에서 시간여행마를 있는 체류형 K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명도~말도~반죽도 K-관광섬 본격 추진으로 고군산해양문화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월명산 전망대, 달빛마루를 연계한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사업으로 매력적 관광인프라 조성, △익사이팅한 사계절 축제도시 지향, △지역특화형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조성 추진으로 'K콘텐츠 기반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을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 생태·안전도시 조성을 통한 정주도시 완성
정주도시로서의 필수요건인 안전대책도 놓치지 않는다.

2023년 7월, 60년만의 집중호우에도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했던 군산시는 빈틈없는 재해예방을 위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의 추진, △화화사고 예방시스템 가동 등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흐트러짐 없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철길 숲, 도시바람길 숲 등 △친환경 시민 친화 숲 조성으로 자연 휴식공간을 만들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군산전북대 병원 연내 착공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지역 의료의 불균형 해소와 야간시간대 안정적 소아 진료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산의 강점 살린 체감형 시정을 위해 전력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이와 어른 모두가 살맛나는 공동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후·환경 위기 극복,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드는데 행정 역량을 모으겠다"며, "오직 시민 행복과 군산 발전만을 생각하며 군산시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다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